

불황이 부른 '알뜰 소비'...○○까지 중고거래 해요

사용한 졸업 축하 꽃다발·기저귀·분유에 쓰고 남은 달걀 등 거래 "한 푼이라도" 가성비 우선...금값 오르자 오래된 금반지도 매물로

"졸업식 아침에 사서 사진만 찍었어요. 아직 싱싱해요."
졸업시즌을 맞아 중고거래 플랫폼에 졸업축하를 위한 꽃다발을 판매·구매한다는 광주 시민들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치솟는 생화 가격이 부담스러운 지역민이 축하용 꽃다발마저 저렴한 중고거래를 이용해 사고 팔고 있는 것이다.
꽃다발 외에도 교환율·고급리·고물가가 이어지며 허리띠를 졸라맨 지역민들은 적극 중고거래에 나서고 있다. 금값과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라 금과 달걀까지 중고거래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오늘 아침 딸 고등학교 졸업식을 위해 4만원 주고 구매한 꽃다발을 3만원에 팔아요"라는 광주시 북구 주민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밖에도 "오늘 구매해 1시간 동안 사진만 찍었다", "아직 깨끗하고 싱싱하다"며 졸업식 축하용으로 구매한 꽃다발을 곧바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일반적으로 3~6만원에 거래되는 꽃다발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1~2만원에 저렴하게 판매되니 대부분 빠르게 거래가 완료됐다.
졸업하는 자녀나 친구들을 축하하고 싶은데, 경제 불황 속에서 잠시 사용하는 꽃다발을 위해 3~

6만원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들이 중고거래를 통해 가성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좋은 방법이다. 졸업식 시즌에는 평소보다 더 비싸게 팔기도 하니 지혜롭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일각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집에 꽂아두고 향기를 즐길 마음의 여유도 없어진 듯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고 꽃다발 외에도 고물가로 인해 소모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도 더 잦아졌다. 특히 시기가 지나면 사용이 어려운 유아용품 거래가 활발하다. 아이 옷과 장난감 등은 물론 기저귀, 분유 등까지 중고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분유를 바꿔볼까하고 비싸게 주고 구매했는데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 "저렴해서 한 번에 박스로 구매했는데 그 사이 아이가 훌쩍 자라 먹지 않는다"며 각종 소모품들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놨다.
유제품 물가 인상으로 분유 800g 1통에 3~5만원 가량하는 등 부담이 커지자 광주 지역 부모들은 "마음 같아서는 모두 새 것으로 사주고 싶지만, 나가야 하는 돈을 생각하면 중고거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이다.
교환을 추세 속에서 달걀과 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오래된 금반지나 달걀·연화 등을 파는 등 '투자'에 나선 이들도 늘었다.
급전이 필요한 지역민들은 오른 가격에 판매하려 하고, 투자를 위한 지역민들은 시세보다 중고가로 싸게 구매할 수 있어 서로가 윈윈하는 모양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2톤 금반지를 95만원에 판매한다"며 "금값이 많이 올라 차고 다니던 것을 처분하려 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25일 기준 국내 금 시세는 1돈(3.75g)에 54만원 수준으로 한달 전(48만원)에 비해 14% 가량 치솟았다.

금 판매자들은 "빠른 판매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며 "지금도 금값이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행에서 쓰고 남은 달걀·연화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속속 올라왔다.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에 있던 72달걀을 판매한다"며 "현재 환율로 10만4000원이지만 10만원에 판매한다. 흥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1달걀당 1430원에 100달걀 단위로 사겠다"며 구매의사를 밝힌 게시글도 있었다.
오주섭 광주경찰서 수사처장은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역민이 중고거래를 활용해 '알뜰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민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최소화하면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는 등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부양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상판 붕괴 4명 사망

안성서...6명은 중경상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작업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개가 떨어져 내렸다. 이로 인해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바닥

로 추락하면서 4명(한국인 2명, 중국인 2명)이 숨지고, 6명(한국인 5명, 중국인 1명)이 다쳤다. 부상자 6명 중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다.
사고가 난 교각의 높이는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고 52m이며, 상판이 떨어진 구간 거리는 210m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는 '런처'라고 불리는 크레인을 이용해 빔을 교각 위에 거치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판을 받치고 있는 교각은 두 개씩 짝을 지어 일렬로 서 있는데, 위에 올려진 상판이 갑

자기 붕괴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7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사고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세종고속도로(134km)는 크게 수도권(안성-구리-충 길이 72km),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km)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올해 1월 1일 개통됐고, 사고가 난 지점이 포함된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연합뉴스

납품가격 담합 전남교육청 직원·브로커 송치

지역교육지원청 관급자제 납품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입찰을 방해한 전남도교육청 직원과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50대 A씨를 입찰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가격 담합을 주도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관급자제 납품 업체 대표 50대 B씨와 부대표 50대 C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 고등학교 2곳의 천장 흡음재를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해 국고 47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입찰에 참가한 다른업체들과 가격 담합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 담합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취소를 시키고, 사유로 '생산 설비 부족으로 제조 불가'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격 담합 과정에서 A씨 등이 수수료를 챙기는 등 대가성 수익을 챙겼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보를 받아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업체들 간 대화에서 A씨 등이 언급되는 점을 근거로 A씨 등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고 담합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 노후주택 철거 중 가림막에 깔려 작업자 부상

광주도심 노후주택 철거과정에서 철거 잔해물이 인도를 덮치고 도로쪽으로 쏟아져 현장 작업자가 다쳤다.
25일 광주동부경찰과 광주동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옛 지산한의원(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비계 바깥쪽에서 신호수 일을 하고 있던 작업자 60대 A씨가 가림막에 깔려 허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당시 인도에 보행자는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철거 현장에 쌓여 있던 콘크리트 등 잔해물이 공사장 가림막(쌍줄비계)을 밀어내면서 잔해물 등이 도로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1975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난 3일 건물주의 해체신고 이후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한 고시원에서 홀로 살던 40대 기초수급자 숨진 채 발견

홀로 살던 40대 기초수급자가 광주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광주시 북구 풍향동의 한 고시원에서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A씨는 일촌을 맺은 복지주민과 지난 20일까지 연락을 하다 지난 24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담당 복지팀은 24일 오후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가족이 있지만 홀로 살면서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 외부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